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관련 국외사례조사」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스페인(마드리드, 톨레도, 아빌라), 룩셈부르크, 프랑스(퐁위, 파리) -

목 차

| | |
|-----------------------------|----|
| ○ 결과보고서(요약) | 01 |
| 1. 출장 개요 | 02 |
| 1) 출장배경 및 목적 | |
| 2) 출장개요 및 일정 | |
| 2. 방문대상지 개요 및 조사내용 | 04 |
| 1) 방문대상지 개요 | |
| 2) 주요 조사내용 | |
| 3. 조사의 성과 및 환류 | 22 |
| 1)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정책의 개관 | |
| 2) 정책사례 조사의 성과 검토 | |
| 3) 주요 시사점 및 환류 | |
| ○ 부록 (견학지 및 기관 방문 사진, 수집자료) | 27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요약]

- 본 국외 출장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추진 및 공모에 대비하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참조점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음
 - 지역 내 유산의 통합적 관리와 연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 3개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주요 사례지를 탐방하고, 사업 운영에 관련된 주요 기관 담당자를 면담을 진행
- 주요 출장 대상지별 주요 선진사례 및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가 (도시) | 주요 선진사례 | 주요 조사사항 |
|----------------|---|--|
| 스페인 (아빌라, 톨레도) | ① 아빌라 옛 시가지와 대성당 ② 톨레도 역사도시 ③ 아빌라 관광청 기관방문 | ① 세계유산도시 그룹 협력 사례 ② 카스티야레온주 문화적 장소 지정과 문화적 장소의 적용 및 사용 계획 수립 사례 ③ 지역 관광기구의 기능과 역할 조사 (아빌라 관광청) |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 ①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 ② 룩셈부르크 유네스코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기관방문 | ① 세계유산 도시 해석 및 방문시설 운영사례 ② 유럽 평의회 문화길 프로그램을 통한 광역형 유산연계 사례 |
| 프랑스 (롱위, 파리) | ① 주목할 만한 문화유산 제도 ② 유럽 평의회 문화길 ③ 롱위의 요새 ④ 파리의 센 강변 ⑤ 롱위 시청 기관방문 ⑥ 프랑스 재단 기관방문 | ① 주목할 만한 문화유산 제도를 통한 유산과 주변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존 사례 ② 민간 참여를 통한 유산보존 재정 조달 사례 |

- 이상,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사점은 크게 세 개 주제에서 검토됨
 - ① 지역 유산자원을 통합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 ② 유산자원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방안 모색
 - ③ 유산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참여적 관리 방안 모색
- ①과 관련하여 지역 소재 유산자원의 통합적 정비·활용을 전개한 스페인 세계유산도시 프로그램, 프랑스·룩셈부르크 유럽평의회 문화길 사업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수 유산으로부터 해석되는 문화적 주제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유산을 연계하는 전략의 참조점을 도출
- ②와 관련하여 스페인 세계유산도시(아빌라, 톨레도)의 정비 사례와 프랑스의 주목할 만한 문화유산제도를 중심으로 유산과 주변환경의 통합적 보존 및 활용의 현황 및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그 성공전략의 주요 시사점을 검토함
- ③과 관련하여 유산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및 기업의 참여를 도모한 사례를 검토
- 본 공무 국외출장의 주요 조사사항으로부터 광역 및 초광역 단위의 권역형 유산관리시스템의 수립 및 운영과 유산을 중심에 둔 도시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환류하여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본문)

1. 출장 개요

1) 출장배경 및 목적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사업의 전개
 -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 정비법)」의 시행과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지역 유산에 담긴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교육, 예술 등 새로운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이상,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사업은 고대 역사문화를 증정하는 핵심 유산을 보유한 지자체가 당해 유산을 자원 삼아 지역에 주요 현안을 다루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창출하고 있다.
- 본 국외 출장은 충청남도과 관내 시군의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전략·시행 계획의 수립과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참조점을 확보하고자 관련된 국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의 효과가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의 수행을 보조한다.
 -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신청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 본 출장은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과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 해외 선진 사례지를 탐방하고, 주요 담당자를 면담함으로써 다음의 사항과 관련한 시사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① 지역 유산자원을 통합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 ② 유산자원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방안 모색
 - ③ 유산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참여적 관리방안 모색
- 본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세계유산도시(World Heritage Cities), 유럽 평의회 문화길(Cultural Routes of the Council of Europe) 등 거시적 단위에서의 권역형 유산관리 시스템을 수립한 사례와 프랑스 퐁위 등 도시 단위 유산 활성화 계획 사례 등을 답사하고, 이를 향후 충청남도의 역사문화권 전략계획과 시군/정비구역별 계획 수립에 참고코자 한다.

2) 출장개요 및 일정

- 출장기간 : 2024.05.16.(목) ~ 05.24.(금) / 7박 9일
- 출장자 : 정책연구부 노윤석 부장, 손오달 선임연구원, 홍영현 위촉연구원 등 3인
- 출장자 주요 임무

| 성명(직위) | 업무내용 |
|--------------|-----------------------------------|
| 노윤석 (정책연구부장) | 국외여행 총괄 및 전체 일정 조율 |
| 손오달 (선임연구원) | 주요 견학지 자료 수집 및 조사, 방문기관 담당자 면담 |
| 홍영현 (위촉연구원) | 주요 견학지 자료 수집 및 조사, 방문기관 사전접촉 및 통역 |

- 주요 방문지 : 스페인, 룩셈부르크, 프랑스

| 국가 (도시) | 주요 선진사례 | 기관방문 면담자 |
|-------------------|---|---|
| 스페인 (아빌라, 톨레도) | ① [기관방문] 아빌라 관광청(Avila Turismo) ② [견학일정] 아빌라 옛 시가지와 대성당(Old Town of Avila with its Extro-Muros Churches) ③ [견학일정] 톨레도 역사 도시(Historic City of Toledo) ④ [견학일정] 프라도 미술관(Museo del Prado) | [아빌라 관광청] Maria Herraiez, 아빌라 관광청 담당자 |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 ① [기관방문] 룩셈부르크 유네스코 세계유산 방문자 센터 (Luxemburg UNESCO Vistor Center) ② [견학일정]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City of Luxembourg: its Old Quarters and Fortifications) | [유네스코 방문자 센터] Robert Philippart, Site Manager |
| 프랑스 (롱위, 파리) | ① [기관방문] 롱위 시청(Agglomération du Grand Longwy) ② [기관방문]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 ③ [견학일정] 루브르박물관 ④ [견학일정] 파리의 센 강변의 문화유산(Paris. Banks of the Seine) | [롱위 시청] Lucile Dupuich Kebayer, Cheffe de pôle Culture, Tourisme et Patrimoine [프랑스 재단] Marie Moreau, Chargée de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et Région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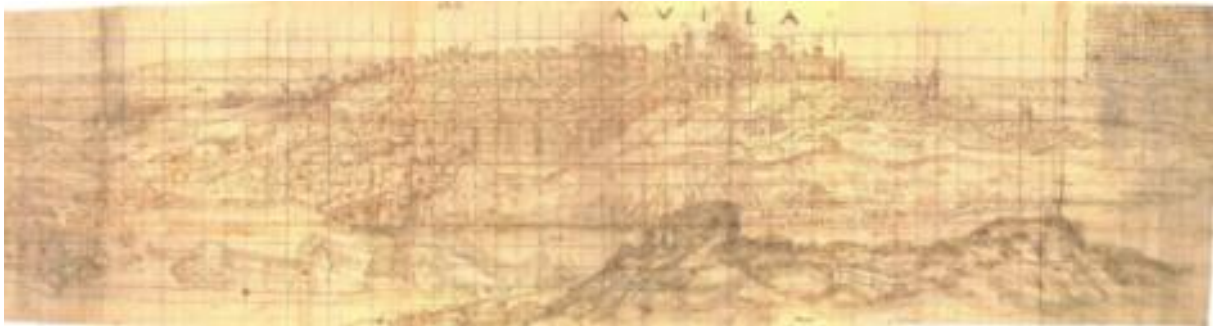
○ 전체 일정

| 월.일 (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조사기관명 | 업무수행내용 |
|---------------|-------------|---------------|--|--|
| 05.16. (목) | 한국 (인천) | 스페인 (마드리드) | ▷ 한국(인천)→스페인(마드리드) 이동 | - 인천공항 출발 / 마드리드공항 도착 |
| 05.17. (금) | 아빌라 | | ▷ 아빌라 관광청 ▷ 아빌라 옛 시가지와 대성당 | - 아빌라 시청 기관방문 - 아빌라 옛 시가지와 대성당 내 아빌라 성벽, 산타 테레사 수도원 등 권역유산 정비 사례 답사 |
| | 마드리드 | | ▷ 마요르 광장, 그린비아 거리 ▷ 프라도 미술관 | - 마요르 광장, 산미구엘 시장 등 마드리드 도시 유적 답사 - 프라도 미술관 답사 |
| 05.18. (토) | 톨레도 | | ▷ 톨레도 역사도시 ▷ 톨레도 방문자 센터 | - 톨레도 역사도시 내부에 있는 산토 토메 대성당, 톨레도 대성당, 알칸따라 다리 등 권역유산 정비 사례 답사 - 톨레도 방문자 센터 견학 |
| | 마드리드 | | ▷ 그린비아 거리 | - 그린비아 거리 등 마드리드 도시 유적 답사 |
| | 브리셀 | | ▷ 스페인(마드리드) →벨기에(브리셀) 이동 | - 마드리드 공항 출발 / 브리셀 공항 도착 |
| 05.19. (일) | 브리셀 | | ▷ 그랑폴리스 광장 | - 그랑폴리스 광장 견학 및 경유지 이동 |
| | 룩셈부르크 | | ▷ 벨기에(브리셀) → 룩셈부르크 이동 | - 브리셀 출발/ 룩셈부르크 도착 |
| 05.20. (월) | 룩셈부르크 | | ▷ 룩셈부르크 유네스코 방문자센터 ▷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 | - 룩셈부르크 유네스코 방문자센터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 내 권역유산 정비 사례 답사 |
| 05.21. (화) | 룽위 | | ▷ 룽위 시청 ▷ 보방 장군 요새 유적 | - 룽위 시청 기관방문 및 부시장 면담 - 보방 장군 룽위 요새 유적 초광역 유산 정비 사례 답사 |
| | 파리 | | ▷ 프랑스(룽위)→프랑스(파리) 이동 | - 룽위 출발/ 파리 도착 |
| 05.22. (수) | 파리 | | ▷ 프랑스 재단 ▷ 루브르 박물관 | - 프랑스 재단 기관방문 -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방안 조사를 위한 루브르 박물관 견학 |
| 05.23. (목) | 파리 | | ▷ 파리의 센 강변 | - 에펠탑, 센 강 등 파리 관광자원 견학 |
| 05.24. (금) | 프랑스 (파리) | 한국 (인천) | ▷ 프랑스(파리) → 한국(인천)이동 | - 샤를드골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2. 방문대상지 개요 및 조사내용

1) 방문대상지 개요

○ 아빌라(Av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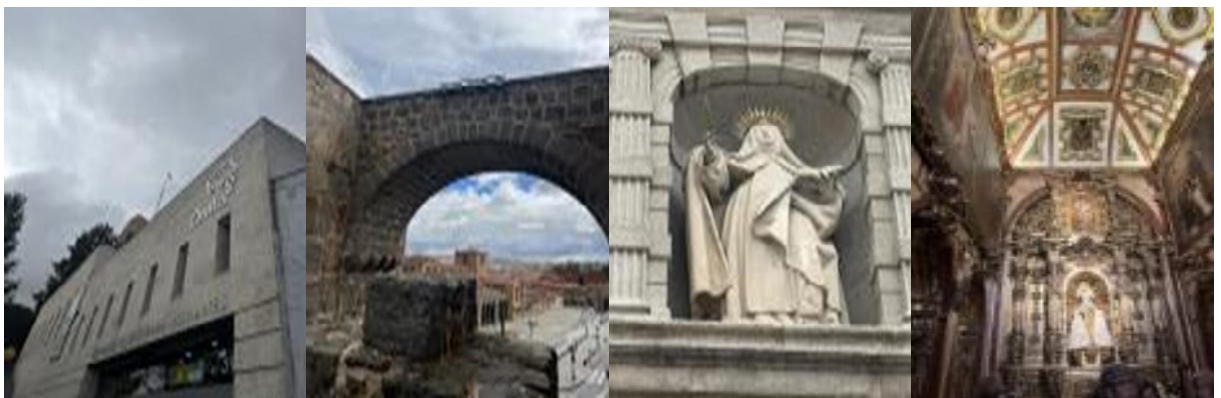
- 도시개요

아빌라시는 카스티야 레온 광역자치체(autonomous community)에 소속된 아빌라주(provinces)의 수도로, 해발 1,130m 고도에 위치한 고산도시이다. 아빌라는 로마 시대 이전에 설치된 요새를 기원으로 하며, 고대 로마에 의해 정복된 이후 도시로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아빌라는 서고트족의 거점으로 발전하였으나, 무어인(스페인의 아랍인)과의 항쟁을 거듭하며 점차 쇠퇴하였다. 16세기 들어 아빌라는 카톨릭 군주의 집권 아래에 다시 요새도시로서 번영하였다. 또한, 아빌라는 16세기 스페인 그리스도교 수도원 개혁을 주도하여 성녀로 일컬어지는 테레사 데 세페다 이 아우마다(Teresa de Cepeda y Ahumada)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이후 아빌라는 고산지대라는 불리한 입지로 인해 르네상스와 근대에 발전에서 소외되어 쇠퇴하였다. 이는 중세시대 도시 경관을 보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개발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중세 성벽과 시설을 허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빌라 대성당(Cathedral of Avila), 산타 테레사 수도원 등 카톨릭 건축시설과 옛 도시를 중세시대 성벽이 감싸고 있는 아빌라는 그 원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돌과 성자의 도시’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1985년 성벽과 교회들을 중심으로 도시 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인구 : 58,548명(2023년 기준, 통계출처: City Population)
- 면적 : 231km²
- 방문 기관 : 아빌라 관광청(avila turismo)
- 주요 유산 : 아빌라 성벽, 아빌라 대성당, 성 테레사 교회-수도원
 - 아빌라 성벽 : 1090년 처음으로 축성되어 아빌라의 옛 시가지를 감싸 요새화하고 있는 성벽이다. 2,516m 둘레, 31ha 면적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88개의 치성, 2,500개의 여장, 9개의 문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아빌라 성벽의 절반정도의 구획은 방문객이 보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다.
 - 아빌라 대성당 : 아빌라 대성당은 1107년부터 1350년까지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으로, 아빌라 시가지의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화강암을 재료삼아 고딕을 주로 하여 양식으로 지어졌다.
 - 성 테레사 교회-수도원(Iglesia-convento de Santa Teresa) : 아빌라의 성녀로 일컬어지는 테레사 수녀가 탄생한 위치에 지어진 교회 겸 수도원이다.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는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원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당시 세속화된 수도원에 다시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스페인에 새로운 수도원을 창설할 것을 주창했다. 이로부터 총 32개의 수도원을 창립하여 스페인 카톨릭의 쇄신과 개혁을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공로로부터 테레사 수녀는 성녀로 추앙받게 되었고, 스페인 카톨릭과 아빌라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성 테레사 교회-수도원은 17세기 초 테레사 수녀를 기려 조성한 교회이자 수도원이다. 고전주의 건축의 내, 외부에 테레사 수녀를 조각해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1886년부터 스페인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되고 있다.



○ 마드리드(Madrid)

- 도시개요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로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다.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큰 단일 도시 중심지이며, 정치, 교육, 환경, 미디어, 과학, 문화, 예술 등 전방위에 걸쳐 스페인 및 유럽을 주도하는 도시이다.

마드리드는 그 현대적 기능 및 위상과 달리 역사적인 도시 형태와 감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마드리드 왕궁, 대성당, 여러 광장 등의 역사적 건축 및 장소를 중심으로 16세기 이래로 형성되어온 시가지의 경관을 잘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마드리드는 새로운 건축이나 철거를 통한 재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건축물을 새로운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드리드의 도시재생 계획인 마드리드 계획(plan madrid)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18세기에 건축된 종합병원(성 카를로스 종합병원)이 레이나소피아 국립미술관으로 재탄생하고, 공영 도축장이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 한 바 있다. 또한, 노후·낙후된 건축물 및 시설의 파사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등 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가지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마드리드는 중세-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도시 경관을 대체로 유지하였고, 이로써 도시 전체가 스페인 건축 역사를 드러내는 전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 인구 : 3,340,176명(2023년 기준, 통계출처: City Population)

- 면적 : 606km²

- 주요 유산 : 마드리드 왕궁, 마요르 광장, 프라도 미술관, 산미구엘 시장

· 마드리드 왕궁 : 마드리드 왕궁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왕실의 정궁이다. 본래 알카사르 데 마드리드라는 이름의 트라스타마라 왕조 궁전이었으나, 16세기 합스부르크 왕조 펠리페 2세가 수도를 마드리드로 정하면서 개축되어 식민지시대 스페인 제국을 상징하는 권위 있는 건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834년 화재로 소실되어 원래의 모습을 상실했고 다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도 마드리드 왕궁은 정궁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스페인

왕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시설을 스페인 왕실 박물관으로 단장해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

- 마요르 광장 : 마요르광장은 1619년 펠리페 3세때 지어진 광장으로서 축하 행사, 가면무도회, 종교 의식행사, 투우경기, 교수형 참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광장이다. 역사적으로 화재 등의 원인으로 훼손되었지만, 19세기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과 광장 가운데 설치된 펠리페 3세의 동상이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는 마드리드와 유럽의 광장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로 명성을 얻고 있다.
- 프라도 미술관 : 1819년 개관한 프라도 미술관은 미술품·유물 등을 수장·전시하는 미술관(박물관)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건축 사례 중 하나이다. 15세기 이후 스페인 왕실에서 수집한 우수 미술품을 수장·연구·전시하고 있다. 고야, 벨라스케스, 주세페 데 리베라, 엘그레코 등 스페인 우수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최초 개관한 이후 수차례 개축·증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산 헤로니모 엘 레알 성당, 살론 데 레이노스, 카손 델 부엔 레티노 등 주변 시설을 포함하여 미술관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다.
- 산미구엘 시장 : 마요르 광장 북쪽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1916년 조성되었다. 2009년 리모델링을 통해 위생 및 환경을 개선하였다. 본래 식료품 도매시장이던 산미구엘 시장은 최근 재개장하며 타파스 또는 핀초스로 일컬어지는 스페인 거리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미식 향유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톨레도(Toledo)

- 도시개요

톨레도시는 카스티야 라만차 광역자치체에 소속된 톨레도 주에 속한 도시이다. 마드리드로부터 남서쪽으로 67km 정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1085년부터 1561년까지 스페인의 수도로 기능했던 고도(古都)이다. 또한, 이 도시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하다.

톨레도는 고대 로마제국 시대에 톨레툼(Toletum)이라는 이름의 도시로 처음 조성되

었다. 도시를 거쳐 흐르는 강과 산지 지형으로 인해 ‘천연의 요새’로 일컬어 졌다. 507년에는 서고트족이 건국한 서고트 왕국의 수도가 되었으나, 711년 이슬람 제국에 의해 서고트 왕국이 멸망하면서, 스페인의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경쟁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1085년 톨레도는 레온-카스티야 왕국의 알폰소 6세가 점령하여 스페인 기독교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이후 스페인 통일 왕국의 수도로서 정치,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톨레도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서로 다른 문화권의 유적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후 고원의 외딴 도시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르네상스-근대 발전에서 소외되어 쇠락하였고, 현재까지 도시 전체가 중세 성곽 도시의 모습을 유지한 채 보존되었다.

톨레도는 화재, 나폴레오 전쟁, 스페인 내전 등으로 일부 파괴되었지만 대체로 원래의 모습을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인구 : 85,818명(2023년 기준, 통계출처: City Population)
- 면적 : 232km²
- 견학 일정 : 세계유산도시 톨레도(Historic City of Toledo), 톨레도 방문자센터
- 주요 유산: 톨레도 대성당, 산토 토메 성당



- 톨레도 대성당 : 톨레도 대성당은 그 연혁이 6세기까지 올라가며, 스페인에서 가장 유서 깊고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이다. 현재의 성당은 13세기에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해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 대대적인 확충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세의 고딕, 초기 르네상스, 후기 르네상스, 무데하르, 바로크, 로코코를 모두 보여주고 있어 스페인 건축의 발전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또한,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서고트 왕국 시절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옛 히스파노-모사라베 예법을 바탕으로 한 미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 산토 토메 성당 : 산토 토메 성당은 중세 카스티야 성당 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보다 엘 그레코가 그린 오르가스 공작 매장 벽화로, 유럽 삼대 성화로 이름이 높다.

○ 룩셈부르크(Luxembourg)

- 도시개요

서유럽에 위치하여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유럽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공국이며, 도시국가이다. 룩셈부르크는 로마시대 이래 사람이 거주하며 정주지를 형성하였다. 룩셈부르크는 서유럽을 지나는 두 개의 주요 로마 가도가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 고대 교통의 요지로 발전하였다.

중세시대에는 신성로마제국에 속하였다. 룩셈부르크가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아르덴의 지크프리트가 트리어의 성 막시민 사원과 보크 바위산을 교환해 룩셈부르크에 대한 소유권을 얻으면서부터였다. 아르덴의 지크프리트와 그 후손들은 보크 바위산에 성을 짓고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며 도시를 발전시켜나갔다.

16세기에 들어 서유럽 열강의 각축이 심화되자, 룩셈부르크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부상하였다. 이로 인해 16-18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서유럽 국가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산업 발전 및 주민 생활이 저해되었다. 하지만 요새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 유럽에서 가상 강력한 요새 도시로 명성을 떨쳤다. 이러한 명성은 룩셈부르크가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186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룩셈부르크는 성벽의 강화와 군사시설의 확충을 거쳐 요새 도시로 발전해왔다.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은 성벽의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1867년 체결된 런던 조약이 룩셈부르크를 영구 중립국으로 인정하면서 요새 도시로 남을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성벽 밖으로 나가 산업 및 생활권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발전이 성벽 밖 지역에 집중되게 되었고, 이로부터 기존 요새 내부의 시설은 옛 모습대로 보존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20세기까지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 요새 내의 구도심은 대체로 옛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룩셈부르크 정부의 입법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 도시의 성벽, 내부의 주요 건축물 그리고 시가지는 1994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어오고 있다.

- 인구 : 660,809명(2023년 기준, 통계출처: City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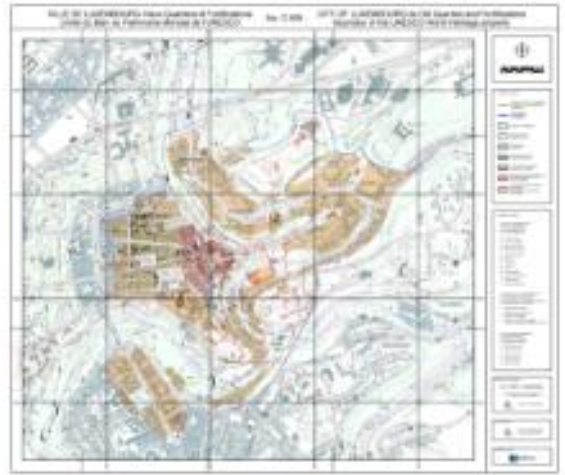
- 면적 : 2,586km²

- 주요 유산 :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도시(City of Luxembourg:its Old Quarters and Fortifications), 룩셈부르크 유네스코 방문자센터

·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도시 :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도시는 신성로마제국, 부르고뉴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 프랑스, 에스파냐, 프러시아 등 룩셈부르크의 지배자들이 시대에 걸쳐 조성해 온 요새화된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성벽과 성내 시설물로 형성된 유산이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룩셈부르크의 중세 요새도시 그 성벽

과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 및 건축물 20건을 포함하고 있다.

- 룩셈부르크 도시역사박물관 겸 유네스코 방문자센터 : 룩셈부르크 도시박물관 겸 유네스코 방문자센터는 1986년 시가지에 위치한 고건물 세 동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최초 개관하였고, 1994년 룩셈부르크 중세 요새도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유네스코 방문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방문자 센터는 룩셈부르크의 역사와 요새 도시의 형성 과정에 전시와 해설을 제공하여 세계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해를 심화하고 있다.



○ 룽위(Longwy)

- 도시개요

룽위는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소도시로 그랑테스트 레지옹 뒤펜트에모엘 데파르트망에 속한 코뮌이다.

룽위는 룩셈부르크를 마주한 벌판의 프랑스의 장군이자 공학자인 세바스티앵 르 프레스트르 드 보방(Sébastien Le Prestre de Vauban)이 1679년부터 만든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활용을 목표로 건설한 당시의 신도시이다. 1730년대에 들어 성당, 시청, 화물취급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 도시의 기틀을 형성하였다.

룽위의 요새는 1792년, 1815년 그리고 1871년 포위 공격을 당한 바 있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크게 파괴되어 요새로서의 쓰임을 잃었다. 하지만, 근대 요새화된 도시의 형성을 보여주는 군사적 기반 시설의 흔적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어

2008년 동질적인 가치를 가진 프랑스의 다른 요새 도시와 함께 보방의 요새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롱위에 보방 장군의 요새가 지어지게 된 것은 롱위가 속한 ‘그란데 지역(grand region)’의 역사적 특징과도 관계가 깊다. 그란데 지역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사이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적 경쟁이 벌어졌던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특히 중세부터 20세기까지의 많은 요새가 지어져 운영되었는데, 이러한 요새를 보유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의 12개 지역¹⁾은 요새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관리 및 활용을 전개하고자 유럽 문화길(Cultural Route of the Council of Europe) 인증을 추진하였다. 2016년 인증이 성사되었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인구 : 50,130명(2021년 기준, 통계출처: City Population)
- 면적 : 71.66km²
- 주요 유산: 롱위의 요새(Forte de Longwy)



- 롱위의 요새 : 롱위의 요새는 17세기 룩셈부르크에 주둔한 스페인 수비대를 저지하고, 뫼즈강과 모젤강 사이의 길목을 폐쇄해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군사 거점이다. 롱위의 요새는 당대의 공학자이자 장군이었던 보방이 설계한 것으로, 기존의 마을과 시설을 완전히 대체해 새로이 건설한 것이었다. 보방이 작업한 160개의 요새 도시중에서도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한 것은 9개 도시로 꼽히는데, 롱위는 그 중 하나로 요새 건설에 대한 보방의 이론과 개념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 롱위의 요새는 6개의 각진 보루로 이루어진 별 모양으로 건설되었다. 도시 내부에는 거대한 성당, 대규모 무기고, 11개의 막사, 5개의 우물 등 전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 롱위의 요사는 1914년 포위 공격을 당해 무너진 뒤 군사적 쓰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성벽을 비롯한 내 외부의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 파리(Paris)

- 도시개요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이다. 파리는 고대 갈리아 일족의 정주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갈리아 일족의 이름을 따 파리시(Parisii)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정착되어 현재의 명칭(파리, Paris)이 된 것이다. 고대 로마제국은 갈리아를 정복한 후 이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파리의 기원이 된다.

중세에 들어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하였다. 파리는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이자 고딕 건축의 발상지였다. 13세기 중반에는 파리 대학교가 설립되어 전 유럽의 대학생들이 유학하기도 하였다. 파리는 14세기 흑사병과 15세기 백년 전쟁을 겪으며 쇠락하였고, 잉글랜드와 부르กอ뉴 공국에 의해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16세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위그노 전쟁으로 혼돈에 빠졌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여전히 유럽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수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18세기 들어서 파리는 계몽주의의 발상지로 거듭났다. 이는 1789년 절대주의와 구제도의 모순에 반발한 계몽운동인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19세기에 들어 프랑스는 현재의 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1848년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나폴레옹 3세(또는 샤를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Charles Louis Napoleon Bonaparte)는 도시 행정가인 오스만 남작(Georges-Eugene Haussmann)으로 하여금 파리 도심의 재개발을 전개하도록 하여 도시공간을 일신(一新)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의 직선화, 상하수도 확충, 녹지와 공원의 조성 등이 전개되어 파리의 획기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파리는 근대적 도시 생활환경 속에 중세 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이 어우러져 특유의 아름다움을 형성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파리의 도시공간이 보여주는 가치에 주목해 1991년 파리를 관류하는 센 강을 중심으로 설치된 대로와 역사적 건축물을 포함하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결정하였다(파리의 센 강변).

또한, 프랑스의 문화유산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Ministere de la Culture)는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도시환경이 어우러져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해당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이자 고유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정비·활용하기 위해 당국과 지역이 협력하는 정책을 일찍이 수립해 적용해오고 있다.

- 인구 : 2,133,111명(2021년 기준, 통계출처: City Population)

- 면적 : 106km²

- 견학 일정: 루브르 박물관, 파리의 센 강변(Paris, Banks of Seine)

- 주요 유산: 파리의 센 강변(Paris, Banks of the Seine)

· 파리의 센 강변 : 파리의 센 강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루브르 미술관에서 에펠탑까

지, 콩코르드 광장에서 그랑팔레와 프티팔레까지 파리의 발전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과 생트샤펠 성당은 세계적인 건축학적 걸작이며, 도시 행정가인 오스만 남작이 계획한 커다란 광장과 대로는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도시 건설 계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주요 조사내용

○ 세계유산도시 그룹 협력 사례

세계유산도시 프로그램은 주민의 생활권과 유산의 보존 범위가 중복되어 도시 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특히 보존과 개발의 조화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들이 사회경제 발전 전략과 유산 보존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²⁾

세계유산도시의 보존과 관리와 관련하여 스페인은 국제기구 성격인 세계유산도시기구(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에 대한 참여 외에도, 국가 내 협력 기구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스페인 세계유산도시 그룹(Grupo Ciudades Patrimonio de la Humanidad de España(스페인어), Spanish Group of World Heritage Cities(영어))이라 한다. 여기에는 본 출장 대상지인 아빌라와 톨레도를 포함해 15개 세계유산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 세계유산도시 그룹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각 도시단위의 유산을 관리하는 관리단체와 이를 소관하는 지방당국이 공동행동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다.

스페인 세계유산도시 그룹 내 구성도시 간의 협력은 크게 세 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도시의 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술, 지식, 노하우 등을 상호 공유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세계유산도시 기구는 연례 포럼을 통해 세계유산도시 그룹에 속한 문화유

산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는 공동행동을 통해 스페인 문화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 국가·국제적 유산관리 당국과의 협상에 비교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유산도시 그룹 내의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정책적 협상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셋째는 유산 활용 및 관광 촉진에 관한 협력이다. 스페인 세계유산도시 그룹은 스페인의 세계유산도시 15개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야간 행사 프로그램인 문화유산의 밤(La Noche Del Patrimonio)를 공동 주최하고, 세계유산 도시를 순회하는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유산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도시 그룹의 명의로 해외 관광 당국과의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관광 촉진을 위한 마케팅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카스티야 레온 광역자치체 ‘문화적 장소’ 지정과 ‘문화적 장소의 적용 및 사용 계획’ 수립 사례

금번 출장 대상지인 아빌라가 속한 카스티야 레온 광역자치체는 문화유산 법³⁾으로 ‘문화적 장소(Espacios Culturales)’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적 장소는 개별 유산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 단위의 유산자원을 연계하는 면적을 장소(place)로서 다루는 유산 개념으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의하는 문화경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의하는 정비구역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아빌라 역시 성곽에 포함된 중세도시 경관을 통합하여 문화적 장소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보존, 정비, 활용하는 공간 계획은 도시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장소의 적용 및 사용 계획’의 수립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유산 관리 당국은 동 계획의 수립을 통해 문화적 장소에 대한 가치의 변경이나 손상 등의 영향에서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측면과 지역의 문화적 관계를 기반으로 가치를 촉진하는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장소 내 점 단위 유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정비 계획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정소는 다시 다른 문화적 장소 및 기타 유산과 루트(길) 또는 권역으로 연계된다. 이러한 장소 간의 연계는 관광 및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카스티야레온주는 지역의 문화적 장소 등을 문화적 주제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루트화 하는 ‘카스티야레온주 순례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문화적 장소를 연계하는 15개의 루트를 개발하였으며, 한 장소에 대한 방문이 다른 장소에 대한 방문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치 인식 제고, 정보 전달, 마케팅 및 홍보 등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빌라의 테레사’를 소재로 유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성 테레사 수녀의 발자취(Huellas Teresa de Jesus)’로 명명된 동 프로그램은 스페인의 수도원 개혁을 이끈 성 테레사 수녀와 관련이 깊은 전국의 14개 수도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역 관광기구의 기능과 역할 조사 (아빌라 관광청)

아빌라 관광청은 성곽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의 촉진과 방문자 정보제공,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에 있어 시사성 있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① 방문자 센터 운영 : 아빌라 관광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아빌라 옛 시가지와 대성당의 성벽을 활용하여 방문자 센터 및 관광청 사무공간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이 장소는 방문객에게 아빌라의 역사와 유산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전시물을 통해 아빌라 도시의 조성 및 역사, 성곽의 변천사, 역사적 인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빌라의 문화유산 외에도 카스티야레온 광역자치체 순례길, 성 테레사 수녀의 발자취 등에 대한 정보와 홍보를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가 다른 문화적 장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어리스트 센터는 성곽 및 유물 모형, 음성안내 등 장애인을 위한 안내자료를 폭넓게 제작·전시하고 있어 유산 접근성 개

선에 관한 선진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②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아빌라 관광청은 아빌라에서 일어나는 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연중 각종 축제와 이벤트를 기획해 개최하고 있다. 이벤트의 내용은 역사인물 해설, 특별 전시 등 유산 및 역사와 관련된 것부터, 댄스 대회, 콘서트 등 일반 대중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세시대의 날(Medieval Days)’의 개최이다. 중세시대의 날은 아빌라 전체가 중세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 재현 축제로, 축제 기간동안 아빌라 전역에서 중세를 주제로 하는 연극, 체험, 퍼레이드가 다채롭게 전개된다.



③ 지역 사회와의 협력 : 아빌라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유산 관광으로부터의 경제적 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아빌라 관광 기념품 기획·개발과 관련이 있다. 아빌라는 일부 지역의 특산품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 관련 산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빌라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빌라는 홈페이지와 방문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숙박 시설 및 식당에 대한 정보와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방문객이

자기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지역 내 민간 관광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홍보에 취약한 지역의 영세 사업체가 방문객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세계유산 도시 해석 및 방문시설 운영사례

역사적으로 요새화된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룩셈부르크는 시가지 내에 위치한 중세시대 민가 세 동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 겸 유네스코 방문자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건축의 외관(파사드)를 유지하되,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중요한 전시 및 해설과 도시 경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도시역사박물관 겸 유네스코 세계유산방문자센터는 방문자에 대하여 도시와 유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전시와 해설을 심도 있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동 박물관에 설치된 유네스코 세계유산방문자센터는 도시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핵심 문화유산의 분포와 그에 대한 보호의 취지와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 방문객이 유산 보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유럽 평의회 문화길 프로그램을 통한 광역형 유산연계 사례

1987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선언(Declaration of Santiago de Compostela)을 통해 시작된 유럽 평의회 문화길 프로그램(Cultural Routes of the Council of Europe, 이하 유럽 문화길)은 유럽 국가가 공유하는 역사, 문화 및 기억에 기여하는 ‘유럽 공동의 유산’을 홍보하는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된 지 40년이 가까운 동 제도는 2023년 기준 총 47개의 문화길과 4,070여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1992년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조직되자, 유럽 내 각 국가는 그동안의 경쟁과 반목을 초월해, ‘유럽 문화·유럽 공동체’라는 새로운 인식을 함께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유럽의 국가들과 민족공동체는 그들의 유산이 단일 국가 및 민족 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가치를 가진다는 이해를 공유했다. 이로써 유럽의 각 국가와 민족공동체가 공통의 문화유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가동되기에 이른다. 유럽 문화길 역시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 문화길 프로그램은 유럽 문화길 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Cultural Routes)가 주축이 되어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동질적인 주체로 연계해 협력적 관리, 활용·관광의 체계를 갖추게끔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유산 당국자들은 이러한 체계에 참여하여 공동행동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조사한 사례지 중에서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룽위의 요새 유산이 그란데 지역의 요새 마을(Fortified Towns of Grande Region)을 명칭으로 하여 유럽 문화길에 포함되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문화길 사업의 핵심 기관인 유럽 문화길 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룽위는 지난 2022년 그란데 지역의 요새 마을 문화길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장 도시로 활동한 바 있다.



유럽 문화길 프로그램에 따른 협력 프로젝트는 최소 3개 이상이 지역이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시작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토대로 협력과 연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각 지역은 연명한 계획과 함께 인증 신청서를 유럽 평의회에 제출한다. 유럽 평의회는 룩셈부르크의 유럽 문화길 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유럽 문화길을 인증한다.

유럽 문화길로 인증된 각 지역은 그 유산 관리 담당자를 매년 개최되는 교육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받는다. 이 교육 아카데미는 문화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지역 간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유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고도화하도록 유도한다.

유럽 문화길 프로그램의 중요한 지향은 네트워크를 구성한 각 지역이 유산 보존에 협력하여 해당 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산이 유럽 젊은이를 비롯한 대중에 제공하는 역사 교육, 문화 향유 등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 문화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당사 지역 및 단체는 ① 연구개발협력, ② 유럽 역사 및 기억에 대한 홍보, ③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④ 현대문화와 예술의 도입 및 실천, ⑤ 관광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 등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문화길 프로그램에 포함된 유산은 각 국가가 운영하는 유산 제도에 따른 지정 유산(designated heritage)에 준하여 관리된다. 이로써 유산 관리자와 이를 소관하

는 지역 당국은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유럽 문화길 프로그램은 유산을 매개로 삼아 지역 관광 사업체에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문화길을 찾은 방문객이 직접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평의회와 각 국가는 보유한 유산정보·관광안내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럽 문화길과 연계된 관광지점, 숙박시설, 식당, 즐길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주목할 만한 문화유산 지구 제도를 통한 유산과 주변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 사례

주목할 만한 문화유산 지구(les Sites Patrimoniaux Remarquables(프랑스명)·Remarkable Heirtage Site(영문명), 이하 SPR)은 프랑스가 건축, 도시 및 경관 유산의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SPR은 기존에 적용되던 문화유산 주변환경에 대한 보호도구인 보호구역(Secteurs Sauvegardés), 건축·도시 및 경관 유산 보호 구역(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및 건축 및 유산 가치 강화구역(Aires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을 대체하여 2016년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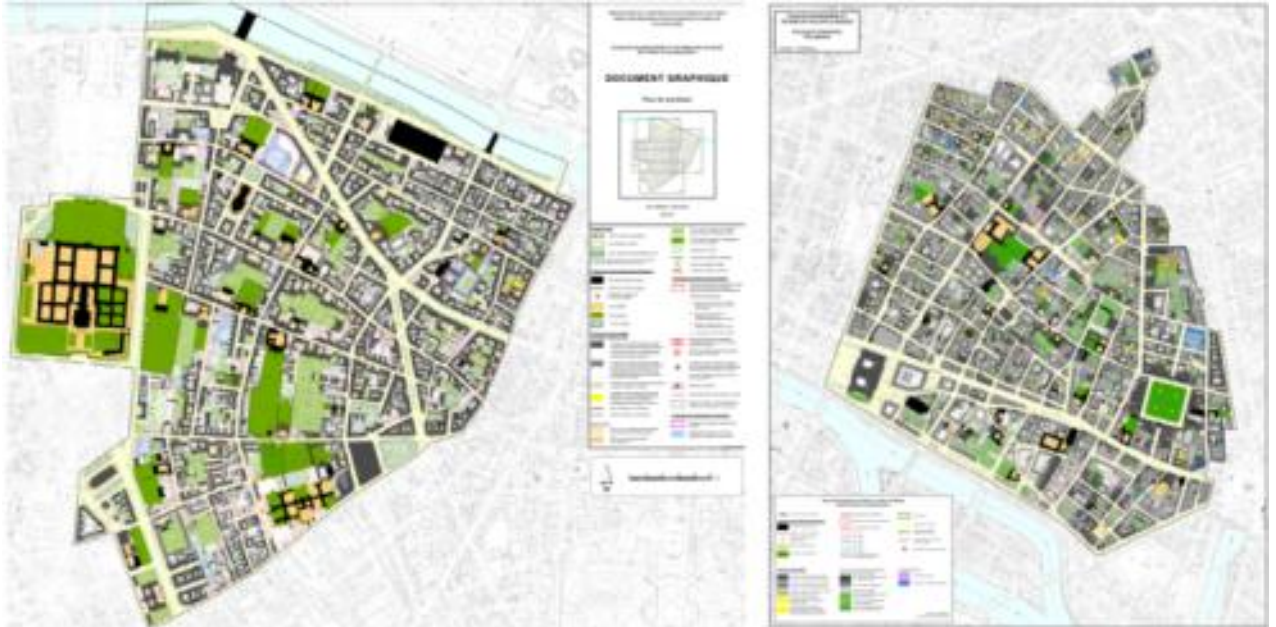


프랑스 문화부는 SPR을 “역사적, 건축학적, 고고학적, 예술적 또는 경관적 관점에서 볼 때 보존, 복원, 재활 또는 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도시, 마을 또는 인근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면단위’에 해당하는 유산 공간의 인식 단계로, 점단위 유산 요소 각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산과 그 주변의 자연적, 건축적 및 경관적 환경을 포함하는 접근이다. 이는 도시 중심부(centres urbains), 인근 지역(quartiers), 마을(villages)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프랑스 문화부는 현재 860개 이상의 SPR을 지정하여 문화유산 보호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번 조사 대상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파리3구·4구(일명, 마레지구) 그리고 7구에

해당하는 일대를 SPR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리의 다른 지구와 달리 일반적인 보호 및 개발 계획(Savegarde et de mise en Valeur, 이하 PSMV)의 적용을 받는 특징이 있다.⁴⁾



파리7구 및 마레지구와 마찬가지로 SPR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 도시계획이 아닌 문화유산 보존에 특화된 특별 계획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 계획은 보호 및 개발 계획(Plan de Sauvegarde et de Mise en Valeur, PSMV)과 건축 및 유산 개발 계획(Plan de Valorisa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PVAP)으로 수립된다. PSMV와 PVAP는 역사적 유산의 복원과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생활 변화에 따른 진화를 허용하면서도 유산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PSMV와 PVAP는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SPR이 소재한 지역 당국이 수립한다. 지역 당국은 이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유산의 가치, 역사, 현황 등의 유산학적 차원뿐 아니라 주택, 기업 및 산업, 황폐화, 주민 등 도시공학적 차원을 두루 고려해 명확한 프레임 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SPR을 구성하는 문화유산 주변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적용되는 경관 규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유산과 동떨어진 건축 및 시설의 디자인으로부터 도시 경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 수립 과정에는 유산과 도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일종의 국가공인 전문가인 프랑스 건축사(Architects des Bâtiments de France)가 참여하여 계획의 객관성과 질을 보장하고 있다.

SPR을 비롯한 프랑스의 면 단위 유산 보호 도구는 상당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제도의 성과로 파리7구와 마레지구는 우수한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지구들은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로 이름이 높은 파리의 얼굴이 되고 있다.

○ 민간 참여를 통한 유산보존 재정 조달 사례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유산 보존 선진국들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유산 보존을 위한 재정의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유사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특정 문화유산 및 분야에 대한 개인의 애호(private preference) 또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의한 자선(charity) 또는 봉사(volunteer)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선은 금전적 지원에, 봉사는 노동력 또는 기술력의 제공에 해당 한다.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 재단(Foundation de France, 이하 FDF)은 프랑스 내/ 외로부터 자선을 모집하고 이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준 공공기관이다. FDF는 6개의 지역 지사를 중심으로 자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금을 설립·유치하는 방식으로 자선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결산 기준 FDF는 977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12,600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분야는 기후변화, 문화 및 창조, 디지털, 영토, 재해·재난, 보건·의료, 새로운 세대, 사회적 유대, 인권과 차별 타파 등으로 다양하며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기금 역시 포함된다.

또한, FDF는 해외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FDF는 유럽, 미국, 아시아 해외 지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교류, 조달,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럽의 지사는 유럽 내 다른 국가의 자선 기구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 지사는 재단의 취지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지사는 특히 미주에 거주하는 유럽 문화 애호가로부터 프랑스 문화유산 등에 대한 기부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FDF가 운용하는 문화유산 분야의 기금은 역사기념물 기금(Foundation Merimee), 님의 로마 기념물 기금(Foundation Internationale Pour les Monuments Romains de Nime), 사냥 나팔의 음악적 영향력 기금(Foundation Pour le Rayonnement Musicale de la Trompe d Chasse)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재단을 통해 모집되는 기금은 대부분 프랑스의 국가지정 유산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 된다.

다른 한편으로 주로 프랑스 내 개인 소유의 지방유산 또는 지정되지 않은 유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문화유산 재단(Foundation du Patrimoine)이 있다. 문화유산 재단은 1996년 창설된 이후, 비교적 눈에 띄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부를 모집하고 집행하는 데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문화유산 재단은 본 출장의 방문 기관인 FPF에 소속된 것은 아니며,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는 파트

너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유산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유산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모금에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방식을 도입했다는 데 있다. 문화유산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한 유산의 정보와 프로젝트의 명세를 업로드하여 개인 자격의 기부를 촉진하고 있다. 기부자는 또한 자신이 기부하거나 관심을 갖는 유산 보존 프로젝트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공유함으로써 펀딩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유산 재단의 활동은 지역, 마을 단위의 영세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조사의 성과 및 환류

1)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정책의 개관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정책의 정책적 함의

-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규명하고, 문화권별로 핵심이 되는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목적 참조).
-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사업의 핵심은 면적 단위의 문화유산과 그 주변 공간을 포괄하여 ‘정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통합적 보호와 복합적 활용을 추진하는 데 있다.
- 즉, 핵심이 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변 요소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적 공간과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유산 가치의 증진과 지역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기존의 개별 유적 단위의 점 단위 정비에서 면적·공간적 관리와 활용체계라는 특징을 보여, 역사가 뒷받침하고 문화가 어우러지

는 ‘역사문화도시 환경의 조성’을 지향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의 구성체계와 의의

- ① 역사문화권 : 역사문화권은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국의 세력권과 그 유산이 분포한 지역을 통칭한다.
 - 역사적 의미 : 한반도 내 고대 왕국의 존재 증거
 - 지리적 의미 : 고대 왕국이 세력을 떨쳤던 지리적 범위⁵⁾
 - 사회적 의미 : 고대 역사로부터 지리적 권역 내에 전승되는 ‘지역적 정체성’
 - (문화)자원적 의미 : 스토리와 의미가 담긴 문화관광 및 문화교육의 자원(소재)
 → 유산적 의미 : 정체성을 전승하는 물리적 실체로서 보존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자원으로써 활용해야 하는 ‘유산’이 분포한 광역적 권역으로 정의됨
- ② 역사문화환경 : 역사문화권에서 의미하는 ‘역사문화환경’은 기존 국가유산 보호 구역으로부터 연장된 규제지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니다. 여기에서 역사 문화환경은 ‘유산’을 중심으로 유산과 더불어 보존, 전승, 활용해야 할 주변 환경이 인식되는 공간범위를 지칭한다. (지정유산 + 비지정 유산 + 주변 관광자원 + 자연 환경 + 경관자원 + 거점시설 = 역사문화환경)
- ③ 정비구역 :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은 역사문화권의 구성요소로 파악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 연속된 역사문화환경을 통합함으로써 연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할 계획을 수립할 지역을 의미한다.⁶⁾

2) 정책사례 조사의 성과 검토

○ 지역 유산자원을 통합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은 동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유산의 군집을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통합함으로써 유산의 매력을 높이고 교육 및 체험의 효과를 확대하는 체계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따라서, 도시에 소재한 유산자원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분석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상의 시사점을 확보하였다.

○ 유산자원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방안 모색

-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산’에 대한 공간적(면 단위) 접근은 ‘규제’를 강조한 동결보존의 방식을 전제해 왔다. 이로 인해 유산 주변의 개발이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슬럼화·폐허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은 유산과 더불어 보존되는 주변 환경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유산과 조화되어 가치를 증진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정비’하는 데 그 골자를 두고 있으므로, 기존의 접근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유산 중심 계획(heritage centered planning)에 따라 관람환경, 방문 편의, 시가 환경 등을 개선한 사례지를 탐방하여 지역 유산자원 개발의 시사점을 확보하였다.

○ 유산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참여적 관리방안 모색

-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동질적인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지역 간의 협력과 유산 주변에서 생업과 문화를 지속해 나가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의 소통·참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이번 국외 사례 조사에서는 특히 재정 조달과 관련하여 지역 유산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협력 및 참여를 통해 유산 보존의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3) 주요 시사점 및 환류

○ 지역 유산자원을 통합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지역 및 초지역의 유산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스페인의 세계유산도시 그룹의 협력 사례, 카스티아레온 광역자치체의 문화적 장소의 적용 및 사용 계획 수립 사례 그리고 유럽 평의회 문화길 프로그램의 광역형 유산연계 사례로부터 중요한 시사점을 검토할 수 있다.

- 이들 사례를 통합해 살펴보면 크게 ① 지속성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② 공동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① 지속성 있는 협력체계는 보존, 관리 분야의 안전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화된 소통 기구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감으로써 정착될 수 있었다. 이번 출장의 주요 사례지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년 간 유산을 매개로 하는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산 분야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공동 마케팅 또는 정부 부처에 대한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것에까지 협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 ②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역사인물, 역사사건, 역사맥락 등으로 연계되는 유산 간에 동시에 추진되거나 또는 순회하는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유산 간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통의 유산 브랜드를 창출해(예컨대, 스페인의 성채유산·그란데 지역의 요새유산·지역의 성인(아빌라의 테레사)·역사적 군사 공학자(보장 장군)) 지역 마케팅의 자원을 확장하는 것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 이러한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의 효과는 다시 새로운 협력과 프로젝트를 추진할 동력이 되는 자산으로 환류되어 유산을 매개로 하는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

○ 유산자원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방안 모색

- 유럽의 주요 문화유산 현장들은 유산자원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적 풍치를 보존하고 이로부터 지역을 매력 있게 만드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유산 정책이 취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규제적 보존’에 비해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 현재 우리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규제적 보존’은 유산 주변의 구역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개발행위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도시 또는 지역 경관에 있어 핵심이 되는 유산과 그 완충 구역은 현상을 유지하도록 보존하되, 그 주변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하는 방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즉, 유산 주변의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도시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맞게 개발하되 유산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건축, 시설도입 등에 있어 경관 및 디자인의 조화로우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 주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되 유산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보다 진보적이다. 또한, 주변의 개발이 적절히 추진되었을 때 유산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의 경관이 창출되고 이로부터 주민의 만족 또는 방문객의 관

광을 유발하는 새로운 자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이기도 하다.

- 하지만 이러한 정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학과 문화유산 분야에 정통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입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례 모두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스페인은 ‘문화적 장소의 적용 및 사용 계획’을 명칭으로, 프랑스는 ‘보호 및 개발 계획’ 또는 ‘건축 및 유산 개발 계획’을 명칭으로 유산과 그 주변을 다루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 이러한 계획의 수립은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사업의 추진과 그 바탕이 되는 정비구역별 ‘정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과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사례는 정비·육성 시행계획 수립의 연구 방법론과 검토 항목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 유산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참여적 관리방안 모색

- 프랑스는 유산의 보존을 위한 재정의 조달과 관련하여 매우 시사성 있는 사례를 보유하고 있었다. 프랑스 재단과 문화유산 재단의 운영이 바로 그것이었다.
-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사업을 비롯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바로 재정의 조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민간 참여 촉진 사례는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 특히, 국가의 재정적 보조가 사업 추진 첫 5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는 지방의 재원으로 유지관리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한 예산 확보 창구를 민간 영역으로부터 자선적 기부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옵션인 것으로 검토된다.

※ 부록 1 : 견학지 및 기관 방문 사진



※ 부록 2 : 수집자료



미술관 안내

한국어

미술관 안내서

시간
 월요일~토요일 10:00 - 20:00
 일요일, 공휴일 10:00 - 19:00
 1월 8일, 12월 24일 및 25일 10:00 - 14:00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 가능
 관람 종료 30분 전에 전시실에서 퇴장

휴관일
 1월 7일, 5월 1일, 12월 25일

프라도 카페
 입장 하일 시간인 해를 30분 전입니다

전시실 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프라도 미술관
 (MUSEO NACIONAL DEL PRADO)
 Paseo del Prado s/n
 28014 Madrid

더블 판매 및 정보
www.museodelprado.es 그리고 애플
 91 068 30 01 / cas@museodelprado.es

요즘 박물관에서

발표부 허가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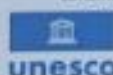
LE GOUVERNEMEN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Ministère de la Culture



LE GOUVERNEMENT
DES VILLES ET COMMUNES DE LUXEMBOURG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Local et
de l'Énergie



VILLE DE
LUXEMBOURG



Organisation
du Patrimoine Culturel
et Immatériel
de l'humanité

Convention
pour la
protection des
biens culturels
et matériels
de l'humanité

luxembourg
city tourist office



Patrimoine
Roses pour
Luxembourg



Editeur : Commission luxembourgeoise pour la coopération avec l'UNESCO en collaboration avec : Ministère de la Culture, Ville de Luxembourg, Luxembourg City Tourist Office, Comité d'Etat, Syndicat des Hôtels Locaux, Platfenthal-Siedentopf, Syndicat des Hôtels Locaux du Stadtgrund, Les Amis du château de Clausen, Freies von der Festungsgeschicht, Geschichtsbüro St. Quirinus.
Layout : Kiermedia
Photos : Chaque photographie est mentionnée sur chaque photo.
Impression : Imprimerie Ossa
Tirage : 500 exemplaires

© 2023
www.unesco.lu

PATRIMOINE MONDIAL UNESCO



PROMENADE

LUXEMBOURG
VIEUX QUARTIERS ET FORTIFICATIONS

© Val Fleitbush

Fondation de France: the leading *philanthropy* *network in France*

Contact
international@fdf.org

If you wish to contribute
from the USA
Please contact
Domitille Marchal-Lemoine
info@friendsoffdf.org

If you wish to contribute
from Europe
Please contact Noura Kihel
tge@fdf.org

If you wish to contribute
from Asia
Please contact
asia@fdf.org

To learn more about the work
of Fondation de France, go to
www.fondationdefrance.org/en

FIND US ON



Design and production: EPC&KA

Text: Fondation de France. Photo credits: J. Piot (couverture),
L. Lung (pp. 5, 6), T. Salva/Lumetto (p. 4)





The app that makes you smile.

L'appli qui vous fait sourire.
Die App, die Sie zum Lächeln bringt.

LEZEUWEG
CITY
MUSEUM



Office de Tourisme
du Grand
Longwy



Longwy II

CARTE DES SENTIERS
CYCLOPEDESTRES
DU GRAND LONGWY

